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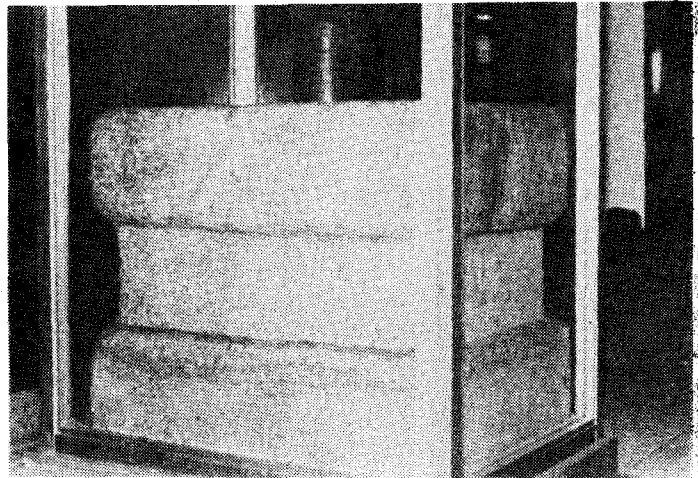
寶物로指定된

堯明科學文化財들

測 雨 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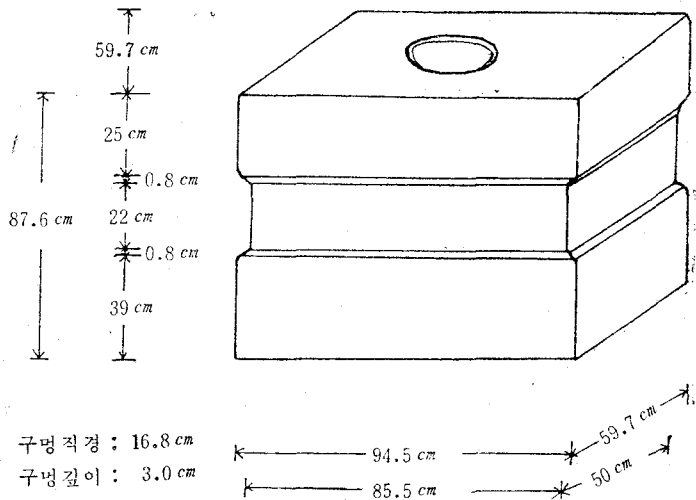
測雨臺는 모두 3개가 寶物로 指定되었다. 즉 大邱 宣化堂 測雨臺는 寶物 第842號로, 觀象監 測雨臺는 寶物 第843號로, 昌德宮 測雨臺는 寶物 第844號로 각각 指定되었다.

세 測雨臺의 면모를 지난號에 이어 사진과 함께 알아본다.



◎ 觀象監 測雨臺 ◎

보 물 : 제843호
 소 재 : 국립중앙기상대
 제작연대 : 조선시대 초기
 재 료 : 화강석
 크 기 : 높이 87.6cm, 넓이 94.5×59.7cm



◎ 昌德宮 測雨臺 ◎

보 물 : 제844호
 소재 : 英陵 진열관
 제작연대 : 1782년(정조 6)
 재료 : 대리석
 크기 : 높이 30.3cm, 넓이
 45.3cm×45.5cm

측우기와 측우대는 영조 때의 건국적인 재정비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에서 제작되었다. 그것은 현재 남아 있는 측우기와 측우대 유물이 말해 주고 일부 기록도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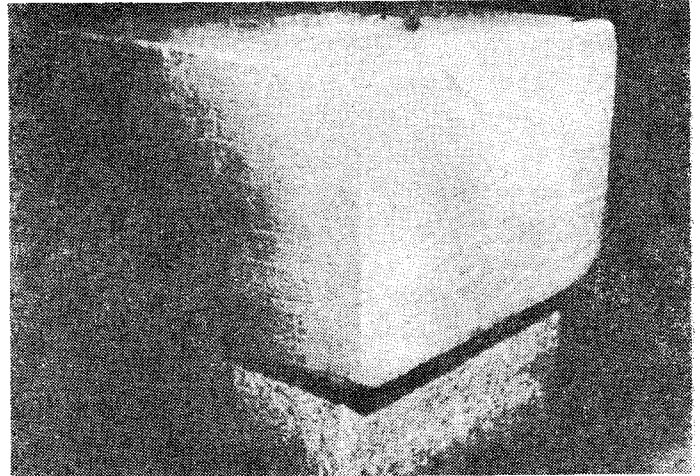
남아있는 유물은 1782년에 제작한 측우대와 1811년의 측우대, 그리고 1837년의 측우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1782년 즉, 정조 6년 제작의 대리석 측우우대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귀중한 유물이다.

그것은, 정조 6년(1782) 6월~7월경에 계속되는 한발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던 나머지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 橿文院 앞마당에 설치하고 비오기를 빌고 기다린 사실을 말해 주는 내용의 銘文을 새긴 흰 대리석 측우대이다. 명문에는 측우기제작의 경위를 말하고 그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어 조선 기상학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측우대의 4측면에 조각한 그 명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명문은 일부 마멸되어 해독이 어렵지만, 『漢京識略』에 그 전문이 실려 있어서 그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측우기는 실로 세종 二十四년에 시작되었다. 구리로 만들었다. 높이가 1尺 5寸이며, 지름이 七寸이다.

靑雲觀과 각 도의 고을에 두고 비 올 때마다 그 깊이를 재어서 보



고하게 하였다. 영종 四十六년에 옛날 제도를 본따서 창덕궁·경희궁 두 궁궐과 八도와 한성부·개성부에 만들어 두었다. 그 그릇은 비록 작으나마 세종과 영종 두 성군께서 수재와 한재를 다스리는 데 크게 힘쓰신 뜻이 있으니 어찌소중하지 않으랴, 왕(영종)의 六년 여름에 경기도가 크게 가물어서 기우제를 여러번 올렸으나 영험이 없었다.

이래서 우리 성상께서 자기를 죄책하고 靑路를 터 놓으며 靑雲霧壇에 기도를 올리는데 일산을 물리치고 예복을 갖추고 저녁이 지내도록 露處하며 제사를 올린 뒤에도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고 날이 샌 뒤에 옥문 밖에 대가를 머무르고 사형수 이외의 경한 범 죄는 모두 석방하였다. 이 날 도성안 士女들이 우러러보고 감격해 하였다. 우는 사람까지 있어서 하는 말이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도 애쓰시니 어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비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기꺼워하는 것은 비온 것과 같다」고 했다. 해가 지기도 전에 과연 큰 비가 밤까지 내리서 一寸二分이나 쌓였으니 이것은 실로 성상께서 지성하심이 하늘이 감동한 것이

다. 그래도 마음에 未洽한 것을 걱정하시고 내각에 분부하여 측우기를 이문원 뜰에 설치하고 기다리게 하였다. 비가 이미 흠족해서 신 念祖와 신 念儉에게 글을 쓰라 하시니 대개 기쁨을 기념하리 한 것이다.

이 측우기는 높이 30.3cm, 넓이 45.3cm×45.5cm로 직경 16.2cm, 길이 4.3cm의 구멍이 있어 측우기를 올려놓게 되어 있다.

처음 1782년(정조 6)에 제작되었을 당시에는 기록과 같이 창덕궁 橿文院 앞마당에 설치하였다. 그것은 和田雄治가 世宗, 英祖兩朝의 測雨器라는 논문을 1910년에 쓸 당시에도 「창덕궁 奎章閣 앞뜰」에 있었다 했으니 원위치인 橿文院 그자리에 있었던게 확실하다.

그러다가 1920년경에 창경원의 당시 京城博物館 앞계단에 옮겨 전시하였다. 그때만해도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측우기도 그 대리석 측우대 위에 놓였었다.

韓國動亂 때 측우기는 없어지고 창경원 명정전 뒤에 전시되었다가, 1960년때 말에 세종대왕기념관에 다시 옮겨 전시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현재 전시 중인 英陵진열관에 옮겼다. <우>